

面粉刺에 對한 臨床的 考察

김윤범 · 김중호 · 채병윤

ABSTRACT

A Clinical study of Acne in the Oriental Medicine

Kim Yoon Bum, O.M.D Kim Joong Ho, O.M.D and Chae Byung Yoon, O.M.D, Department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The clinical study was done in 50 patients with acne who had been treated with
acupuncture and herb-medicin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9 males and 41 females in sex.
- 2) The peak age at onset was 21 - 30 years old(28 cases, 56%).
- 3) The most common chief complaint was itching(70%).
- 4) As for digestion, 24 cases(48%) is poor and defecation disorder appeared 25cases
(50%), difficult menstruation 20 cases(48.78%).
- 5) Bohyulansintang(補血安神湯) was most use in treatments as 26.38%.
- 6) As for treatment period, 25 cases(50%) were treated from 1 week to 3 weeks.

1. 緒 論

面粉刺는 보통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주
로 청년기에 모낭 피지선을 침범하여 나타나는

만성염증성질환으로 면포, 구진, 농포, 낭종 및
결절을 형성하며 후유증으로 반흔을 남길 수 있
는 질환이다.^{4,7,16)}

여드름의 한방적 병명으로는 面瘡²¹⁾, 粉刺^{10,19)}.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教室

20.25), 粉刺瘡^{5,6)}, 肺風粉刺^{9,28)}, 및 穀疔瘡^{5,6,19)}, 青春草²²⁾ 등으로 표기되어왔다.

여드름의 발생기전은 확실치 않으나 피지모낭에 대한 Hormon(Androgen)과 세균(Propioni-bacterium acnes)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3,4,8)} 주로 顔面 및 추간의 上部 특히 前上胸部, 上背部 등의 모공성 조직에 호발하며 월경이상 또는 위장장애를 수반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6,13)} 여드름의 발생은 다양한 인자가 관여하리라 추정될뿐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한의서에는 風熱^{9,21,26)}, 上焦의 肺火¹⁹⁾, 脾肺風濕¹⁰⁾, 脾肺胃 三經의 積熱²²⁾, 血熱^{23,28)}, 濕熱^{10,21,23)}, 濕熱挾痰¹⁸⁾, 瘀血²⁰⁾ 등에 의해 면포가 생긴다고 하였다.

면분자에 대한 연구로는 박¹⁴⁾의 면포에 관한 문헌적 고찰, 조¹⁷⁾의 화침과 면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헌적 고찰, 윤¹⁵⁾의 면포효능에 관한 가미 활혈탕의 실험적 연구, 김¹²⁾의 면포에 응용되는 청상방풍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본 고찰은 위장장애와 생리불순이 면포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면포에 대한 한방적 치료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원에 내원한 면포환자들의 임상 기록지를 통해 조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1. 대상

1993년 3월 20일부터 1994년 3월 19일까지 만 1년간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부속한방병원 외과에 내원한 환자중 면포증상을 자각증상으로

호소한 5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환자 50예를 연령 및 성별, 병력기간, 자각증상, 혈액형별 발생빈도, 환자의 회은, 회병에 대한 선호도, 위장기능 및 생리상태, 사용처방, 치료기간 등에 관하여 본원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하여 임상적으로 조사, 분석, 관찰하였다.

III. 성 적

1. 초진시 연령 및 성별

관찰대상이 된 면포환자 50명중 21 - 30세군이 28명(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가 41명으로 남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나이/성별	남자	여자	총계(%)
11세~20세 이하	3	13	16(32%)
21세~30세 이하	6	22	28(56%)
31세~40세 이하		5	5(10%)
41세~50세 이하		1	1(2%)
총 계	9	41	100

2. 병력기간

병력기간은 1년 - 5년이내의 환자가 총24명으로 전체비율이 48%로 높게 나타났고 5년 - 10년이내가 12명으로 두번째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환기간	빈도	비율(%)
6개월 이내	5	10
6개월~1년이내	2	4
1년~5년이내	24	48
5년~10년이내	12	24
10년~15년이내	5	10
15년~20년이내	2	4
총계	50	100

3. 증상

면포증상이외에 搔痒感이 70%, 化膿性疱疹 24% 背部丘疹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	빈도	비율(%)
面疱	50	100
搔痒感	35	70
頭痛	5	16
眩暈	8	10
背部丘疹	9	18
鱗屑	3	6
上熱感	3	6
化膿性丘疹	12	24
顔部位 汗出過多	5	10
顔面浮腫	3	6
脫毛	2	4

4. 혈액형별 발생빈도

혈액형별 분포는 A형 15명(30%) B형 19명(38%) AB형 10명(20%) O형 6명(12%)이었다.

혈액형	빈도	비율(%)
A형	15	30
B형	19	38
AB형	10	20
O형	6	12
총계	50	100

5. 환자의 회은, 회냉에 관한 선호도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환자가 24명(46%), 찬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15명(30%)로 나타났다.

선호도	빈도	비율(%)
회은	24	46
회냉	15	30
평	11	24
총계	50	100

6. 위장기능 및 생리상태

위장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음식물에 대한 소화상태와 대변상태조사는 각각 48%, 50%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의 생리상태 역시 40%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소화상태	대변상태	생리상태
心下疝	5		
腹 脹	6		
吞 酸	4		
糟 雜	6		
腹 痛	1		
惡 心	2		

軟便	7		
便秘	18		
周期不規則			6
痛經			14
총계/비율	24(48%)	25(50%)	20(48.78%)

7. 치료처방 분포

사용된 처방중 보혈안신탕이 26.38%와 가미당귀작약탕 24.30%의 사용빈도를 나타냈으며 가미곽향정기산은 18.06%의 투약을 보여주었다.

처 방	사용빈도(%)
1)보혈안신탕	38(26.39%)
2)방풍통성산	4(2.78%)
3)비파청폐음	1(0.69%)
4)거풍청기산	1(0.69%)
5)가미당귀작약탕	35(24.30%)
6)가미곽향정기산	26(18.06%)
7)가미활혈탕	9(6.25%)
8)반하백출천마탕	2(1.39%)
9)청혈사물탕	1(0.69%)
10)안심온담탕	2(1.39%)
11)장군고	12(8.30%)
12)미용고	13(9.02%)
	100%

8. 치료기간

치료기간은 1주 - 3주 이내가 25명(50%)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이내가 11명(22%), 3주 - 6주이내가 10명(20%)순이었다.

기간	환자수	비율(%)
1주이내	11	22%
1주~3주 이내	25	50%
3주~6주 이내	10	20%
6주~9주 이내	4	8%
총계	50	100%

IV. 考 察

면분자를 여드름이라하며 피지선이 밀집되어 있는 안면부, 흉부, 배부 등에서 흔히 발생하고 근본적인 병변은 면포이다. 면포가 오래되면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데 피지 모낭에 대한 Androgen과 Propionibacterium acnes의 복합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Androgen에 의해 자극된 피지선은 다량의 피지를 분비하고 이 피지는 세균(Propionibacterium acnes)에 포함된 지방분해효소(Lipase)에 의해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고, 이 지방산과 세균에서 분비되는 화학주성 물질이 모낭에 자극을 주므로 각화가 촉진되어 모낭이 폐색되며 이로 인해 피지관에서 피지가 밖으로 분비되지 못하고 고여서 여드름을 잘 때 나오는 치즈같은 물질이 생성되며 미세면포를 형성하므로 여드름이 발생하는 것이다. 피지관의 바깥에 있는 각질층이 과도하게 형성되어 과각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1,3,4,8,16)}

여드름은 나타나는 발진의 형태에 따라 면포성 여드름, 구진성 여드름, 경결성 여드름, 켈로이드성 여드름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직업에 따라 발

생하는 직업성 여드름과 기계적 여드름 등이 있으며 원인별로 분류할 때에는 화장품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약물 여드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사춘기후 여드름, 월경전 여드름, 그람 음성균에 의한 여드름 등등으로 임상적으로는 다양하게 출현되고 있다.^{4,8,16)}

심상성 여드름은 흔히 보는 보통의 여드름을 말하며 사춘기의 내분비계의 변동 특히 androgen의 증대가 피지선의 기능항진을 촉진시켜 나타나는 것이며, 옹괴성 여드름은 큰 농양 및 배종성 누관, 낭종, 염증성 결절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의 염증성 질환이다. 때로는 낭종과 낭종 사이에 누공이 형성되어 서로 연결되기도 하며 치유 후에도 심한 위축성 또는 켈로이드성 반흔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주로 16세 전후의 남자에 호발하며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며 면역기전의 이상이 원인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으며 심상성 여드름과는 다른 독립된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다. 스테로이드성 여드름은 병리조직학적으로 정상모양을 나타내나 심상성 여드름에서는 피지선의 증식을 일으킨다. 스테로이드성 여드름은 유리지방산 생성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모낭관에 대한 자극이 없고 스테로이드제가 표피세포의 세포분열을 감소시키므로 각질화 과정에 이상이 초래되어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여 모낭성 각화증을 나타내고 여드름을 형성하게 된다.¹⁶⁾

화장품성 여드름은 주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여자에게 주로 나타나며 화장품의 구성성분이 작은 폐쇄성 면포를 유발하며 염증성 병변은 거의 동반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월경전에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한의서에서 면분자의 발생원인 및 발생기전을

살펴보면 소²¹⁾는 面上有風熱氣로 허¹⁰⁾는 脾肺經에 風濕搏熱하여 면부에 熱毒이 생겨 나타난다고 하였다. 진²⁸⁾은 血熱鬱滯不散으로 이²⁵⁾는 風客皮膚痰積臟腑 脾肺風濕搏熱로 공¹⁹⁾은 肺火로 왕²⁴⁾은 熱壅上焦로 채⁹⁾는 肺經血熱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면분자의 원인을 血熱과 脾肺經에 風濕搏熱^{9,10,21,26)}로 요약해 볼 수 있다.

血과 脾肺經의 기능을 면역기능으로 설명하고 있고¹¹⁾ 피부의 過角化현상을 면역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상호 유관한 것으로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그러나 Androgen의 피지분비에 미치는 영향 등 의학적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내원한 환자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11세-20세는 32%, 21세-30세에서는 56%의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10대와 20대에 Androgen분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4.6배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생리전에 발생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사려된다.

병력기간에 따른 조사를 보면 1년 - 5년이내의 환자가 내원한 환자의 48%를 차지하였고 5년 - 10년이내가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면분자의 치료가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증상별로는 면포이외에 소양감이 70%, 화농성 포진 24%, 배부구진 18% 등으로 나타났다.

혈액형별 발생빈도는 A형이 30%, B형 38%, O형 12%, AB형 20%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혈액형분포도인 A형 32.6%, B형 27.6%, O형 29.7%, AB형 10.9%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AB형을 갖고 있는 환자는 여드름의 높은 발병율을 보여주었으며 O형을 가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병율을 나타냈다.

환자의 음식물의 따뜻함과 찬가움에 대한 기호 조사에서 46%가 따뜻한 음식을 좋아했고 30%가 찬음식을 좋아했으나 면포발생과 희운과 희냉의 연관성에 대한 유의성은 없었다.

위장기능과 생리상태가 면분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소화상태가 불량한 자는 전체환자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은脾肺經의 風濕搏熱로 인한 氣不順이 면분자를 일으키는 원인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생리불순을 갖고 있는 경우가 48.78%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면분자의 발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처방은 보혈안신탕이 26.38%, 가미당귀작약탕 24.30%, 가미곽향정기산 18.06%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대체로 1주이상 3주이내가 50%정도 였으며, 1주이내가 22%로 나타났다.

본 고찰을 종합해보면 면분자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머리와 얼굴을 깨끗이 해야하며 여드름을 짜지 않는 것이 흉터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V. 結 果

1993년 3월 20일부터 1994년 3월 19일까지 만 1년간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부속한방병원 외관과에 내원한 50명의 면분자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분석과 관찰을 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 1) 초진시 연령 및 성별분포는 남자가 9명, 여자가 41명으로 여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분포는 21세-30세이하가 28명(56%)으로 가장 많았다.
- 2) 병력기간은 1년-5년이내가 48%, 5년-10년이내가 24%, 6개월이내와 10년 -15년이내가 각각 10%로 나타났다.
- 3) 자각증상은 면포이외에 소양감이 70%, 화농성포진 24%, 배부구진 18%의 비율을 보였다.
- 4) 혈액형별 발생비율은 A형 30% B형 38% AB형 20% O형 12%의 순이었다.
- 5) 환자의 희운, 희냉 선호도는 희운자가 46%, 희냉자가 30%, 별다른 선호 경향이 없는 자가 24%였다.
- 6) 소화상태가 불량한 환자는 24명, 대변상태가 고르지 않은 환자가 25명, 생리부순한 경우가 20명으로 나타났다.
- 7) 사용된 처방 비율은 보혈안신탕이 26.38%, 가미당귀작약탕 24.30%, 가미곽향정기산 18.06% 순이었다.
- 8) 치료기간별로는 1주-3주이내가 50%, 1주이내 22%, 3주-6주이내 20% 순이었다.

參 考 文 獻

1. 국홍일:피부병의 진단과 치료, 서울, 약업신문사, pp.46 - 47, 1983.
2. 김완희, 최달영 : 장부변증론치, 서울, 정보사, p.59, 1985.
3. 김창종 : 병태생리학, 서울, 계축문화사, pp. 749 - 751, 1988.

4. 대한피부과학회간행위원회: 피부과학, 서울, 여문각, pp.347 - 352, 1992.
5. 박병곤 : 한방임상40년, 서울, 대광문화사, pp.460 - 461, 1988.
6. 배원식 : 한방임상학, 서울, 남산당, p.595, 1982.
7. 신태양사편집부 : The great medical encyclopedia, 서울, 신태양사, p.53, 1991.
8. 이유신 : 임상피부과학, 서울, 여문각, p.217, 1989.
9. 채병윤 : 한방외과, 서울, 고문사, p.310, 1986.
10. 허 준 :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p.121, 1986.
11. 길촌성 : 면역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
12. 김민수, 채병윤 : 면포에 응용되는 청상방풍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2.
13. 김창환: 면포에 관한 고찰, 경희한의과대학논문집 7:1 -8, 1984
14. 박항기, 채병윤 : 면포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 3(1):59-71, 1990.
15. 윤홍진, 채병윤 : 면포효능에 관한 가미활혈탕의 실험적 연구, 경희의학 7(3):312 - 321, 1991.
16. 임상약학편집부: 임상약학 3(11):1 -97, 1991
17. 조영신 : 화침과 면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1990.
18. 고백강 : 중의외과학,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p.305 - 307, 1987.
19. 공정현 : 만병회춘, 대북, 대중국도서공사 권 하, p.9, 1974.
20. 상해중의학원 : 중의외과학, 상해, 상무인서관, p.43, 133, 136, 1977.
21. 소원방 : 소씨제병원후론, 대중, 소인출판사 권 27, pp.10 -11, 1958
22. 양검휘 : 상견피부병중의치료간편,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57, 1986.
23. 오 점 : 의종금감(하), 서울, 대성출판사, p.53, 1983.
24. 왕궁당 : 육과준승, 대북, 신문풍출판공사, p.198, 294, 1979.
25. 이 천 : 의학입문, 서울, 한성사, p.784, 794, 1983.
26. 장종정 : 유문사친, 대북, 선풍출판사 6권, p.6, 1981.
27. 주 숙 : 보제방, 서울, 한성사 권 51, pp. 175 - 185, 1981.
28. 진실공 : 외과정종, 대북, 선풍출판사 하1권 88조, 1976.